

서울 충돌 여파로 금남로 참가자들 격앙

광주 '평화 촛불' 흔들리나

2일 총파업·5일 주말 집회 등 긴장

서울 촛불집회가 정부의 강경대응 이후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고,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그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광주에서도 '촛불 충돌'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또 지난달 10일 6·10항쟁 20주년 기념 촛불집회 이후 시들었던 광주 촛불집회가 오는 2일 민노총 총파업, 5일 대규모 주말집회, 9일 농민대회 등 잇따른 대형 이슈에 따라 다시 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종교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달 30일 광주 남동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 집전으로 시국미사를 갖고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대한 정부의 회개를 촉구하고, 신도와 신부들이 금남로 촛불집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광주·전남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법박 대통령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연행자 석방 ▲폭력경찰 처벌 등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한편, 광주·전남 지역 촛불집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같은 논의는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돼온 광주 집회가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

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 촛불집회는 아직 과격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는 시민들이 당사에 먹물을 쏟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30여분간 대치했다. 경찰은 당사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를 전경버스로 막고 전·의

경 4개 중대 400여명을 동원해 버스 주변을 이중으로 둘러쌌다. 같은 날 밤 10시께 시민들이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청사를 향해 진출하자 경찰이 전경버스 2대와 4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동원, 검찰청 입구에서 200m 이상 떨어진 도로부터 완전 차단했다. 시위대는 검찰청사 진입이 막히자 전경버스를 밀치고, 조형물을 버스 위로 던졌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경찰의 서울 촛불집회 강경진압으로 시민들이 다

수 부상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광주 집회 참여자들이 격앙돼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감정 폭발이 있거나 돌발행동이 벌어지면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며 "집회 참석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최권일·안원주기자 cki@kwangju.co.kr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촛불집회를 폭력과 탄압으로 고려고 한다"며 정부의 강경진압을 비난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검찰총장 "불법 촛불 중지부 찍겠다"

'예비군복 시위 처벌' 없던 일로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중지부를 찍고 전문시위꾼은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과격시위 주도 세력과 선량

한 시민의 등 뒤에 숨어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는 전문 시위꾼을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대책회의 주력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및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실무처원서 검토"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국가신인도와 국익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실무처원서 검토했다"고 밝

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하고 있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할 때는 사실상 제재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계획을 놓고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예비군과 예비역의 군복 착용 등에 대해 실무처원에서 종합 검토를 한 적은 있으나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 발급

보험금 수령 대가 수익원 쟁거

모집책 등 2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일 보험계약자·의사와 공모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수 억원의 사례금을 챙긴 강모(45)씨와 모집책 박모(5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강씨 등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계약자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지역 의사 서모(48)씨 등 3명도 소환 조사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5년 9월 27일 서울 H중합병원에서 김씨와 이 병원 의사 서씨와 짜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K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장애보험금 9천700만원을 타낸 뒤 1천만원을 사례비로 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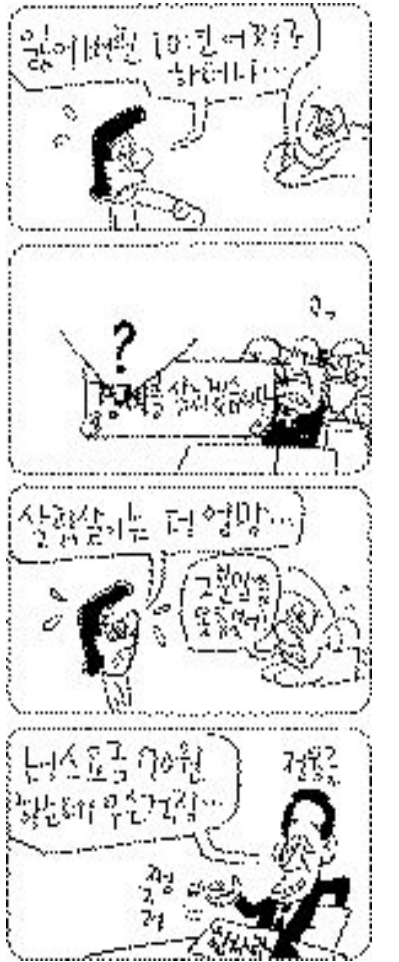
등 최근까지 보험계약자 10명에게 허위로 보험금 9억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서울 J자동차보험손해사정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 의사와 친분이 생기자 한 건당 20만~30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김씨에게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사전 교육을 시켰으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씨는 지방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제해사고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 등이 보험계약자로 추정되는 30여명과 입출금 거래를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544) 김중두



건설노조 장비 동원 전남도청앞 시위

목포와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서남권 9개 시·군 굴착기 업자 연합체인 건설기계연합회 서남권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류보조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굴착기와 덤프 등 대형장비 100여대를 동원해 도청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요구가 상응분에 따른 유류보조금을 굴착기 등에도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건설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일일작업시간 준수 등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시공사 등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시공사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전남 서남권 지역 대형건설기계 업자 1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 성격의 단체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차마 속 촬영범 잡고보니 성폭행범

○여성들의 차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DNA 조사결과 3년 전 여성을 성폭행했던 사실도 드러나 철창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6)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께 남구 월산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박모(여·20)씨의 차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장씨의 구강세포를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결과 3년 전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한 남성의 DNA와 일치했다는 것.

○결국 장씨는 지난 2005년 9월 3일 밤 9시50분께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차 배달을 나온 김모(여·21)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8만3천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성폭행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inan travel, featuring the word 'HAINAN' in large colorful letters, travel routes like '무안 하이난(심야)직항' and '무안 장사(장가게)직항', and logos for Hainan Airlines and Naver.